

**국내경기는 4년 1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악화**

~ 개인소비 정체 및 엔저(円低)에 따른 코스트 부담 고조가 하락세 요인으로 ~

(조사대상 2만 7,159사, 유효회답 1만 1,068사, 회답율 40.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43.3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엔저(円低)에 따른 코스트 부담 고조 및 개인소비 침체로 인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향후의 경기는 일본은행의 추가금리 인상 및 계속된 인력부족 등 마이너스 요인도 많아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별로는 『서비스』 및 『소매』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에서 악화되었다. 개인소비 정체가 계속됨과 함께 엔저(円低)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인건비 증가 등이 부담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4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관광지의 체감경기는 인바운드 소비가 호조인 한편 인근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 확보 상황에 따라 명암이 갈랐다.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이 3개월 만에 개선된 한편 「중소기업」은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개인소비DI는 42.8(전월대비 0.5포인트 감소)로 2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기업으로부터는 소비자의 절약 지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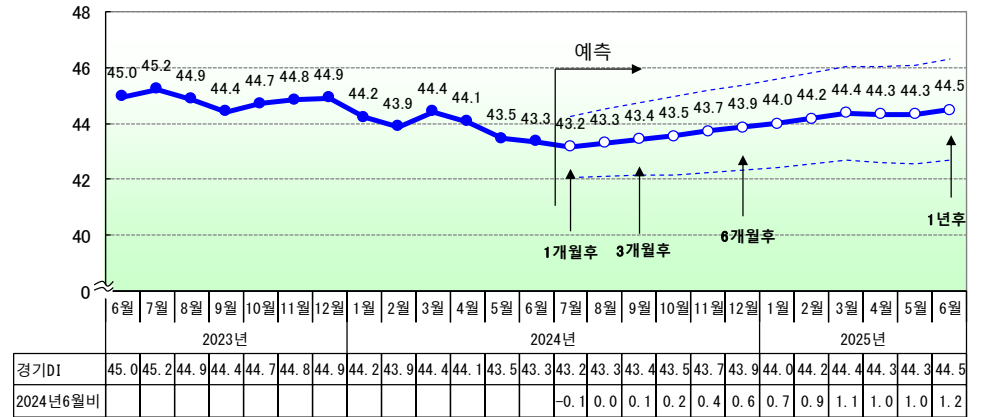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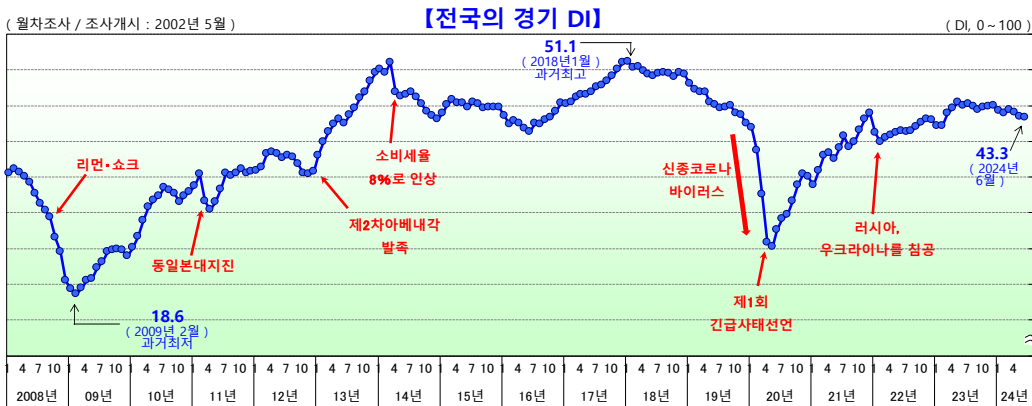
**< 2024년 6월의 동향 : 3개월 연속 후퇴 >**

2024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43.3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엔저(円低)에 따른 코스트 부담 고조 및 개인소비 침체로 인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3개월 연속 악화는 2020년 5월 이래 4년 1개월 만이다.

6월은 숙박업 및 오락서비스업 등 개인 대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소비DI가 크게 침체하였다. 엔저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 코스트 부담 증가가 체감경기를 하락시킨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인건비 증가 및 2024년 문제로의 대응,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도 악재였다. 근린 지역으로부터의 여행객 확보가 각 지역의 관광산업의 명암을 갈랐다. 한편 인바운드 소비가 호조였으며 DX 관련 투자 및 민간공사의 발주증가, 에어컨 등 계절상품 판매, 활발한 이벤트 개최 등은 호재였다.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으로 추이 >**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인상 및 보너스 증가에 따른 실질임금 동향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엔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바운드 소비 확대 및 자동차 만회생산,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회복 등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하방요인으로 인건비 및 물류 코스트 증가, 사업단가의 상승 속도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가격 전가나 가계의 절약지향 고조 등이 우려된다. 향후의 경기는 일본은행의 추가금리인상 및 계속된 인력부족 등 마이너스 요인도 많아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방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